

다시보라

행 9:10-22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시각장애인’이라 부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이란 글에서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삼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꽃, 나무, 풀,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른 아침 큰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활기찬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에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때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에 진열돼 있는 상품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삼일 동안 눈을 뜨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고 싶어 한 것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이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기가 없으면 한 순간도 살 수 없지만,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보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 시각장애인인 사울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보고 깨달아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울에게 3일 동안 어둠을 주십니다. 그것은 육체의 눈을 감겨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론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했다면 맹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논리와 율법주의 신앙에 붙잡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전략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7~9)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

나라 ...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0, 12)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보여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행위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영의 눈이 뜨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울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육체의 눈을 3일 동안 감기십니다. 영적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움을 입어야 할 인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바디매오가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사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여리고 성은 많은 나무들로 가득하고 특히 장미나무가 많아 ‘장미의 도성’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매오에게 아름다운 여리고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디매오는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막 10:47; 눅 18:38).

현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처지가 지극히 불쌍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삶을 사는 까닭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움을 입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오슈비영침(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잔혹한 학살이 자행되는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예이에 디므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1년 그는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 참모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했습니다. 재판관이 디므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십시오.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한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디므로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깨어난 디므로에게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기절하셨습니까?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견딜 수 없었습니까?” “아니오.” “그럼, 왜 쓰러졌습니까?” 디므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동료들을 가스실로 보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나는 저 평범한 얼굴을 보면서 나 자신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린 때로 텔레비전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중죄를 지은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웃의 얼굴이요, 각 개인 안에 있는 얼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광기, 미움, 죄, 절망, 불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없이는 새로워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매오는 적어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가문, 학벌, 명예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

로 인해 스테반을 죽였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육체의 눈이 머는 순간, 자신이 철저한 영적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순, 갈등, 고통 안에서 사울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생은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목표는 분명히 있는데, 출발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거두려고만 했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삶의 출발점이 있을 때 비로소 목표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정확히 바라볼 때 삶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달리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인정한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메시아를 자신이 직접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것이 오히려 그분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순이요, 우리 인생의 모순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채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위험해집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는 과정들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삶의 모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겪는 모순적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이 당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뜻을 아나니아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아랍어, 히브리어 등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죽이고 다메섹 사건을 통해 영적 시각장애인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자신의 논리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인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된 삶을 모순된 사건으로 바로 잡아 주십니다. 곧 능력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미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된 고통의 문제를 사람이나 과거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비록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 해도 결코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과거의 원인을 알아낸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문제의 해답을 과거에서 찾지 않으시고 미래에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나 현실에 있지 않고, 고난의 사건 후에 오는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래에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미래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모순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미래에 하나님의 섭리

를 깨닫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건너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간 감옥에서 극심한 소외와 고독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 일은 민족과 열방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겐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실수의 산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실수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시편 138편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선택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나침반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앞이 캄캄해지면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삶의 미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상식은 상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과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믿음을 갖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로 풀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는 둘째 과정으로, 먼저 경험한 사람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는 유명인이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 이름처럼 큰 사람,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촌부와 같은 아나니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고난 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움은 늘 있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 배움에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스승의 기준을 자신의 생각대로 정하고자 합니다. 학벌, 경제, 나이를 따지면서 스승을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배움을 갖지 못합니다.

만일 온누리 성도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육체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스승 되신 곳에서 배우십시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르칠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 함께 나뉘어야 합니다.

올해에 하 목사님이 1만 순장 프로젝트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각 순 안에서 전도, 양육, 파송이 일어나는 새로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가르치는 사람을 많이 필요합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배울 때 영적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 의미 있는 일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난이 싫어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피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선교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좀더 편해지려고 과감히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떠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의 눈을 뜨고 자신의 실상을 보는 사람만이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작은 섬김에도 잘 살펴보면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꺼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바다에 붓는 물 한 방울과 같지만, 만약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본 바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이 후로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한 방울의 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2, 13).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다가오는 절망과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살아 계시는 주님,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주님 앞에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로서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됨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